

로랑 바르브롱 ( Laurent Barberon ) 사진전

## "CARNETS DE VOYAGES EN CORÉE"



프랑스 사진작가 로랑 바르브롱의 사진전 " Carnets de voyages en Corée"가 오는 3월 8일부터 3주간 갤러리 카슈에서 개최된다.

로랑 바르브롱과 한국의 인연은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3년 프랑스 태권도 대표팀의 일원으로 세계 태권도 대회 참가차 한국을 처음 방문한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70-80년대 프랑스에 거주하던 소수의 한국인들과의 교류로 이어진다. 이후 도복 대신 카메라를 들고 수시로 파리와 서울을 오가며 작품활동을 해왔으며, 1978년 건축가 김수근의 초청으로 서울에서 첫 사진전을 개최하게 된다.

친근하고 재미있는 사진을 표상하는 로랑 바르브롱이 보는 '한국의 모습'은 그가 펴낸 여러 권의 사진집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최근에는 '향후 사라질 한국의 모습'을 담은 사진집 <봉주르코레 >(2013)를 출판한 바 있다.

이번 전시 'Carnets de voyages en Corée'에서는 1973년 부터 2013년 까지의 한국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이며, 작가의 한국과 한국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포착한 70-80년대의 추억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전시는 박대철 작가 부부가 카상(Cachan)에 새로 개관한 Cachou 갤러리에서 개최되는 첫 초청전이다.

※ 갤러리 오픈시간 : 화요일-일요일 : 15 h à 18h30 / 06 52 83 38 35

※ 자세한 정보 : [www.laurentbarberon.com](http://www.laurentbarberon.com)

○ 일시 : 2016년 3월 8일(화)-31일(목) /

○ 장소 : **GALERIE CACHOU**

6 rue Georges Vigor

94230 Cachan

[www.galeriecachou.com](http://www.galeriecachou.com)